



코어라인소프트

Bloomberg Code (384470 KS) | Reuters Code (384470.KQ)

2023년 12월 15일

[제약/바이오]

정재원 선임연구원

☎ 02-3772-1542

✉ jaewonjeong@shinhan.com

숨겨진 코어힘 강자



Not Rated

-



현재주가 (12월 14일)

28,400 원



목표주가

-



상승여력

-

- ◆ 흥부 검진 스페셜리스트를 꿈꾸는 의료AI 기업
- ◆ 인공지능 CT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 기대
- ◆ 해외에서의 성과 대비 기업가치 저평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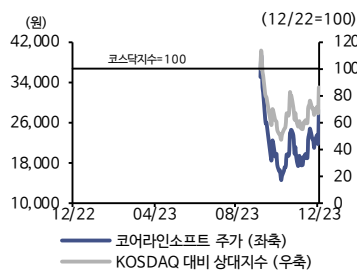
신한 리서치 투자정보
www.shinhansec.com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시가총액	351.4십억원
발행주식수	12.4백만주
유동주식수	8.3백만주(66.8%)
52 주 최고가/최저가	39,400 원/14,490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1,869,740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44,979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06%
주요주주	
김진국 외 3 인	24.43%

절대수익률	
3개월	0.0%
6개월	0.0%
12개월	0.0%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개월	0.0%
6개월	0.0%
12개월	0.0%

주가



흉부 검진 스페셜리스트를 꿈꾸는 의료시 기업

2012년 설립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AVIEW 시리즈가 있다. 2016년 폐결절 전자동 분석 솔루션 AIVEW LCS와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 솔루션인 AVIEW COPD를 시작으로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확보해 판매 중이다.

특히 폐질환 Big 3 적응증인 폐암, 폐기종, 관상동맥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AIVEW LCS PLUS는 실제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 중이다. 해당 솔루션은 17년 국가폐암검진의 공식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프로젝트에서도 선정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인공지능 CT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 기대

CT 시장 중에서도 특히 폐질환 분야에 있어 CT를 활용한 조기검진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다양한 적응증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검진 가능한 동사의 제품 경쟁력이 존재한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경쟁업체 수는 많지 않다. 소프트웨어의 정확도에 대해 대규모 실증 분석을 진행해 근거 기반의 의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외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AVIEW LCS PLUS의 포텐셜에 주목한다. 이를 통한 단기적인 외형 성장보다는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우호적인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의료진의 선택을 기대해본다.

해외의 성과, 기술력 고려 시 상승여력 있는 상황으로 판단

12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동사의 시가총액은 3,514억원이다. 루닛과 뷰노 등 대표적인 진단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인공지능 진단 분야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렇기에 해외에서의 성과 혹은 경쟁업체 대비 기술력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상기 측면에서 이미 해외에서 동사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폐질환 CT 분야 경쟁력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EPS (원)	B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순차입금비율 (%)
2019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2020	2.3	(3.5)	(4.6)	(685)	628	0.0	1.8	0.0	(79.8)	(98.2)
2021	2.2	(7.4)	(7.5)	(760)	1,121	0.0	1.6	0.0	(85.0)	(91.3)
2022	4.1	(10.2)	(10.2)	(970)	207	0.0	0.1	0.0	(146.2)	(55.4)
2023F	7.7	(19.7)	(21.3)	(1,788)	(1,543)	(12.2)	(16.3)	(14.2)	251.4	(105.0)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I. 기업 개요

흉부 검진의 스페셜리스트를 꿈꾸는 인공지능 의료AI 기업

폐질환 Big 3 적응증 동시
진단하는 AIVEW LCS PLUS
보유한 의료AI 진단기업

2012년 설립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의료영상 전자동정량분석을 통해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및 판매 중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AIVEW 시리즈가 있다. 2016년 폐결절 전자동 분석 솔루션 AIVEW LCS와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 솔루션인 AIVEW COPD를 시작으로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확보해 판매 중이다.

특히 폐질환 Big 3 적응증인 폐암, 폐기종, 관상동맥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AIVEW LCS PLUS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17년 국가폐암검진의 공식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프로젝트에서도 선정된 이력이 있다. 현재 독일 HANSE, 이탈리아 ILSP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동사의 솔루션을 활용해 폐암검진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상기 언급한 솔루션 외에도 두경부, 뇌혈관 조영 영상 등 다양한 라인업들에서의 매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 뇌출혈 검진 솔루션 AIVEW NeuroCAD는 현재 혁신의료기기 7호 지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고시 대기 중이다. 뇌혈관 조영 영상을 구현하는 AIVEW BAS는 국내 외에도 캐나다를 타겟으로 글로벌 버전 제품 출시가 진행 중이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큰 폭의 변화없으나 적자폭
상승. 의료AI 시장의 성장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존재

공시에 따르면 동사의 23년 3분기 누적 매출은 28억원으로, 22년 3분기 누적 매출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적자폭이 22년 3분기 누적 기준 79억원에서 8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내 상장한 타 의료AI 기업의 패턴과 유사하다.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솔루션 시장이 최근 개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은 향후 성장을 위한 투자의 시간이라는 판단이다. 동사는 의료영상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가 예상되는 CT 시장을 타겟한다는 점에서 성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코어라인소프트 핵심 경쟁력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II. 투자 포인트

1.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CT 시장 내 메인 플레이어 역할 기대

최고의 정밀함과 활용성을 갖춘 3차원 CT 영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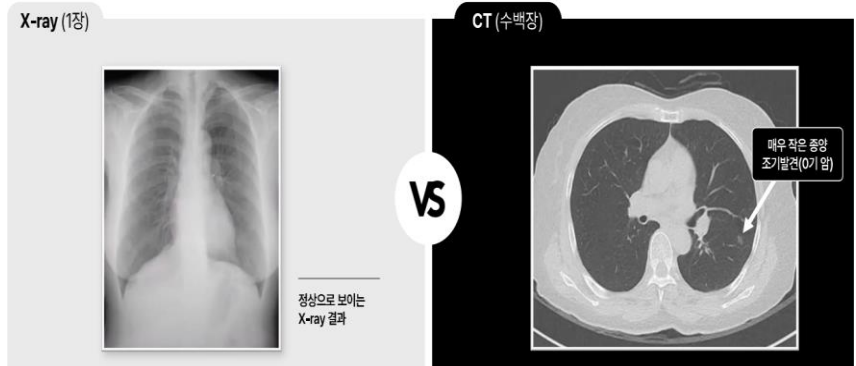
CT는 X-ray 대비 미세한 병변이나 변화 초기 검출에 유용. 향후 성장 포텐셜이 가장 높은 분야

CT(Computed Tomography)는 조직의 정밀분석이 가능하며, 높은 해상도 기반 미세병변 및 변화 초기 검출이 가능한 수백장의 사진으로 이뤄진 영상이다. 기존 X-ray는 1장의 사진이기 때문에 미세한 병변이나 변화 파악은 제한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9년 예상되는 AI 의료영상 분야별 시장규모 예측치 중에서 CT가 가장 성장성이 높다. 결국 정량분석에 가장 적합한 의료영상임과 동시에 다양한 폐암검진 프로젝트를 통해 CT 영상의 우수성이 증명되어 의료진의 선호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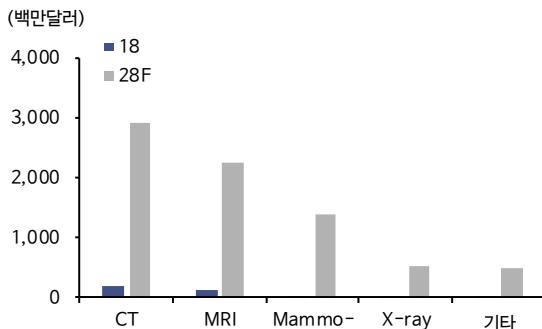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NLST 프로젝트를 통해 5만 3천명 대상, 유럽에서는 NELSON으로 1만 6천명 대상으로 폐암검진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두 대륙의 공통 목적의 프로젝트로 폐암 검진엔 CT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료진의 의견이 도출됐다.

CT vs X-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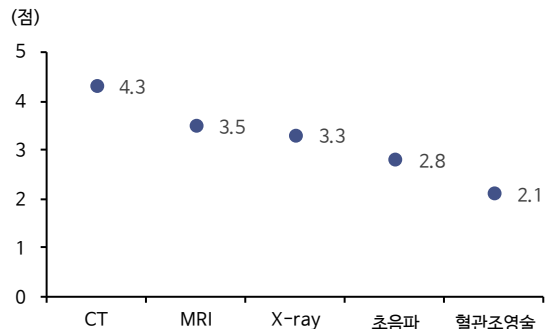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AI 의료영상 시장규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한투자증권

정량분석 의료영상 적합도 평가결과



자료: IALSC, 신한투자증권 / 주: 높을수록 우위

재래식 판독 방식 대비 AI 활용 시 편의성 급증

하지만 재래식 CT 판독 방식은 수백장의 단면을 순차 판독하는 방식이었기에, 비효율적이었다. 2022년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당 영상 장수는 X-ray가 평균 1.3장인데 반해 CT는 308.7장으로 약 240배에 가까운 영상 장수가 필요했다. 또한 의료진 1인당 판독 이미지 수 역시 X-ray 4만장 대비 CT 135만장으로 35배에 달했다. 그렇기에 평균 판독 시간 역시 10배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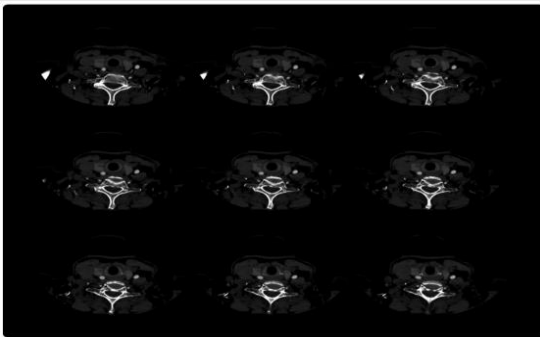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이 주목받았다. 수백개의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면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는 동사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다. 동사의 경쟁력은 인공지능을 통해 찾은 병변을 3D 가시화해 조금 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다.

비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한 동사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비교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 증명

의료AI 진단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우수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켰는지와 의료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데이터 학습 측면에서 동사는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네덜란드,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비공개된 데이터를 다수 확보했다.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동사의 제품은 CT 데이터 비교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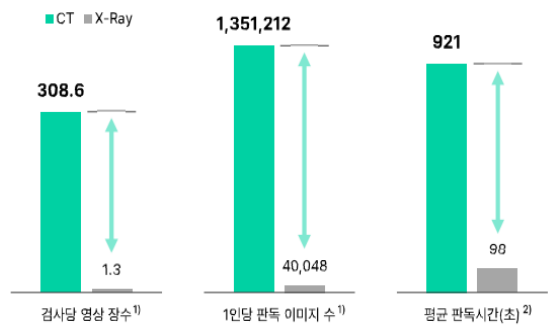
미국 UMMC에서 실시한 Reader study 결과, 폐결절 솔루션인 AVIEW LCS를 사용한 그룹과 동사 CAD 미사용자 그룹 간 폐결절 탐지 확률, 시간 모두 우위를 보였다. 결절 탐지확률은 20% 이상 차이가 났고 소요시간은 70% 절감시켰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솔루션 AVIEW COPD의 경우 일치도는 유사했으나 전문가의 수동 분석 대비 소요시간을 90% 이상 줄여준 결과도 확보했다.

재래식 CT 판독 방식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CT vs X-ray 비교 연구



자료: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2022,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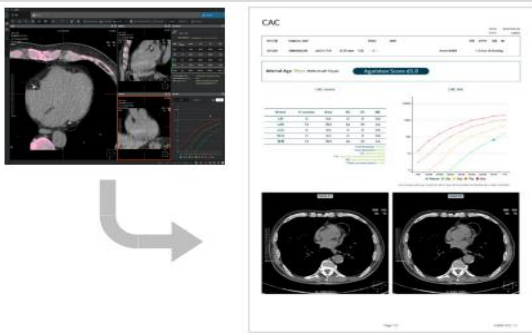
근거 기반의 보수적인 의료 시장에서 대규모 실증분석 완료해 경쟁력 확보

또한 동사의 소프트웨어는 국내외 대규모 실증을 완료했다. 임상적 유효성을 증명했기에 근거 기반의 보수적인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국내 외에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대략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령 관상동맥 석회화(CAC)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관상동맥석회화 지수를 동사 솔루션이 자동으로 지수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값들을 모아 기록지를 만들고 그 기록지에 명시된 수치와 실제 의료진이 수기로 작업한 기록지 내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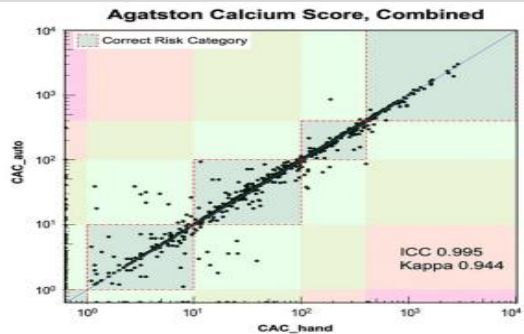
아래 두 그룹 간의 결과값 일치도를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보이듯 AI와 실제 의료진 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기반의 보수적인 의료계 시장에서 대규모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한 동사의 인공지능 솔루션 강점은 경쟁 업체 대비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CAC 실증분석 예시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의료진 수기값 vs 솔루션 측정값 비교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2. 선제적인 해외 진출 발판 교두보 마련

글로벌 폐암검진 프로젝트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AVIEW LCS PLUS

AVIEW LCS PLUS는 동반 검진이 중요해지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솔루션

AVIEW LCS PLUS는 폐질환 Big 3 적응증인 폐암(폐결절),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 및 관상동맥질환(관상동맥석회화)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는 동반 검진이 중요하다. 즉,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개의 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의료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상기 언급한 Big 3 적응증에 대해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곳은 많다. 하지만 모든 적응증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현 시점에서는 동사와 SIEMENS 정도가 리스트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AVIEW LCS PLUS는 현재 국내 및 유럽, 미국 등 해외도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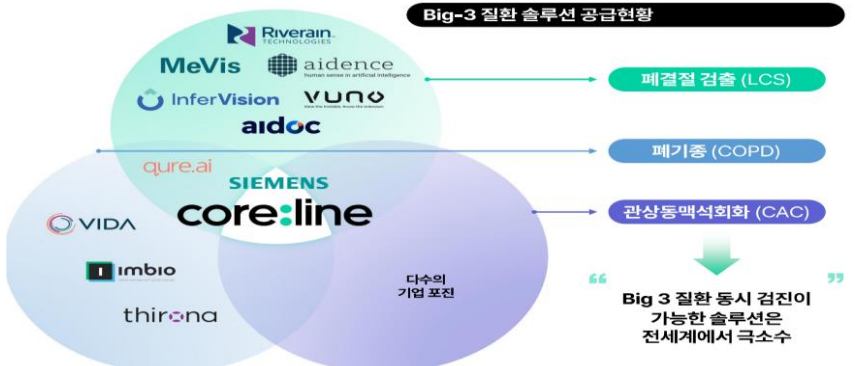
시멘스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선 자사 장비를 통해서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의료 장비를 도입해야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범용성 측면에서 동사의 LCS PLUS 솔루션을 대안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

AVIEW LCS PLUS 소프트웨어 공급현황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폐질환 Big 3 질환 솔루션 글로벌 현황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폐암 조기검진을 주목하는 현 상황에서 동사의 솔루션 긍정적인 레퍼런스 확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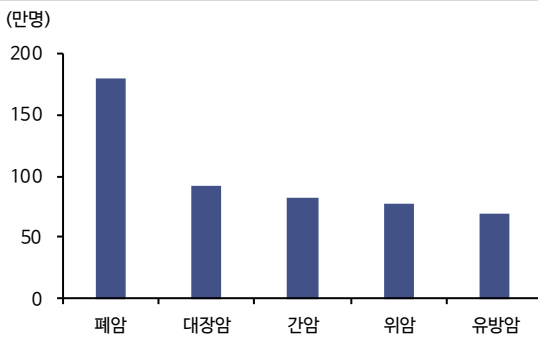
글로벌 기준으로 폐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커지고 있다. WHO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암종별 사망자 수에서 폐암이 2위인 대장암 대비 2배에 가까운 사망자 수치를 보였다. 이는 증상 발현 시점에 치료가 어려운 수준 까지 진행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폐암은 약 37%로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얼마나 빨리 폐암을 발견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폐암 조기 검진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동사의 소프트웨어 LCS PLUS가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HANSE 프로젝트, 이탈리아의 ILSP 프로젝트 및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인 4-ITLR 프로젝트 등에서 이미 AVIEW LCS PLUS를 통한 폐암 조기검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영국, 이집트, 일본, 대만 등 추가적인 해외 국가 확장 모멘텀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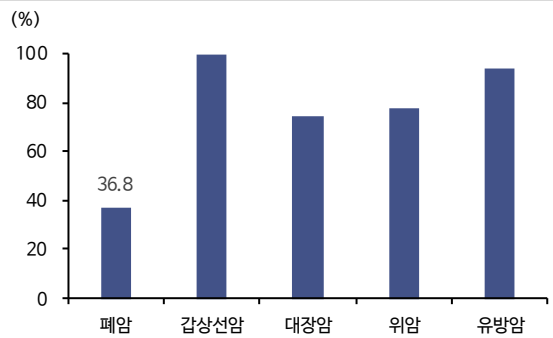
매출을 단기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보다는 폐암검진에 대한 실질적 레퍼런스가 확보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이력으로 동사의 소프트웨어는 유럽폐암검진 자격인증 실기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호적인 레퍼런스가 누적됨에 따라 의료진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이에 따른 매출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

암종별 전세계 사망자 수 (2020년 기준)



자료: WHO, 신한투자증권

국내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 비교 (16~20)



자료: 국립암센터, 신한투자증권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F
자산총계	N/A	10.5	14.8	5.6	47.0
유동자산	N/A	8.8	12.8	3.6	44.1
현금및현금성자산	N/A	8.0	12.0	2.5	42.0
매출채권	N/A	0.5	0.4	0.8	1.5
재고자산	N/A	0.0	0.0	0.0	0.0
비유동자산	N/A	1.7	2.0	2.0	3.0
유형자산	N/A	1.3	1.5	1.5	1.8
무형자산	N/A	0.0	0.1	0.1	0.4
투자자산	N/A	0.4	0.4	0.4	0.7
기타금융투자자산	N/A	0.0	0.0	0.0	0.0
부채총계	N/A	4.7	3.0	3.4	66.1
유동부채	N/A	2.7	2.3	2.5	34.8
단기차입금	N/A	0.3	0.3	0.3	0.6
매입채무	N/A	0.0	0.0	0.0	0.0
유동성장기부채	N/A	0.1	0.1	0.0	30.0
비유동부채	N/A	2.0	0.7	0.9	31.3
사채	N/A	0.0	0.0	0.0	0.0
장기차입금(경기금융부채 포함)	N/A	0.7	0.6	0.5	30.5
기타금융투자부채	N/A	0.0	0.0	0.0	0.0
자본총계	N/A	5.7	11.8	2.2	(19.1)
자본금	N/A	1.4	1.6	4.9	4.9
자본잉여금	N/A	17.4	30.4	27.1	27.1
기타자본	N/A	0.6	0.9	1.4	1.4
기타포괄이익누계액	N/A	(0.0)	0.0	0.2	0.2
이익잉여금	N/A	(13.7)	(21.2)	(31.4)	(52.7)
지배주주지분	N/A	5.7	11.8	2.2	(19.1)
비지배주주지분	N/A	0.0	0.0	0.0	0.0
*총차입금	N/A	2.4	1.4	1.3	62.1
*순차입금(순현금)	N/A	(5.6)	(10.8)	(1.2)	20.0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2.4)	(7.2)	(8.8)	(18.4)
당기순이익	N/A	(4.6)	(7.5)	(10.2)	(21.3)
유형자산상각비	N/A	0.4	0.5	0.7	1.7
무형자산상각비	N/A	0.0	0.0	0.0	0.2
외화환산손실(이익)	N/A	0.0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N/A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N/A	(0.0)	(0.0)	0.1	0.0
운전자본변동	N/A	0.0	(0.8)	0.1	0.9
(법인세납부)	N/A	(0.0)	(0.0)	0.0	0.0
기타	N/A	1.8	0.6	0.5	0.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4.5)	(0.4)	(0.2)	(2.8)
유형자산의증가(CAPEX)	N/A	(0.2)	(0.3)	(0.2)	(2.0)
유형자산의감소	N/A	0.0	0.0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N/A	(0.0)	(0.0)	(0.0)	(0.5)
투자자산의감소(증가)	N/A	(0.1)	0.0	0.0	(0.3)
기타	N/A	(4.2)	(0.1)	0.0	0.0
FCF	N/A	N/A	(6.6)	(9.8)	(19.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9.5	11.5	(0.7)	60.8
차입금의 증가(감소)	N/A	(0.2)	(0.1)	(0.1)	60.8
자기주식의처분(취득)	N/A	0.0	0.0	0.0	0.0
배당금	N/A	0.0	0.0	0.0	0.0
기타	N/A	9.7	11.6	(0.6)	0.0
기타현금흐름	N/A	0.0	0.0	0.0	0.0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N/A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N/A	(0.0)	0.0	0.1	0.0
현금의증가(감소)	N/A	2.7	4.0	(9.5)	39.5
기초현금	N/A	0.3	8.0	12.0	2.5
기말현금	N/A	3.0	12.0	2.5	42.0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F
매출액	N/A	2.3	2.2	4.1	7.7
증감률 (%)	N/A	N/A	(5.4)	89.3	89.3
매출원가	N/A	0.0	0.0	0.0	0.0
매출총이익	N/A	2.3	2.2	4.1	7.7
매출총이익률 (%)	N/A	100.0	100.0	100.0	100.0
판매관리비	N/A	5.8	9.5	14.3	27.4
영업이익	N/A	(3.5)	(7.4)	(10.2)	(19.7)
증감률 (%)	N/A	N/A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률 (%)	N/A	(153.7)	(341.0)	(248.4)	(254.4)
영업외손익	N/A	(1.1)	(0.1)	(0.0)	(1.6)
금융손익	N/A	(1.1)	(0.1)	0.0	(1.5)
기타영업외손익	N/A	0.0	0.0	0.0	0.0
중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N/A	0.0	0.0	(0.1)	(0.1)
세전계속사업이익	N/A	(4.6)	(7.5)	(10.2)	(21.3)
법인세비용	N/A	0.0	0.0	0.0	0.0
계속사업이익	N/A	(4.6)	(7.5)	(10.2)	(21.3)
중단사업이익	N/A	0.0	0.0	0.0	0.0
당기순이익	N/A	(4.6)	(7.5)	(10.2)	(21.3)
증감률 (%)	N/A	N/A	적지	적지	적지
순이익률 (%)	N/A	(200.1)	(344.8)	(249.6)	(274.6)
(지배주주)당기순이익	N/A	(4.6)	(7.5)	(10.2)	(21.3)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N/A	0.0	0.0	0.0	0.0
총포괄이익	N/A	(4.6)	(7.5)	(10.1)	(21.3)
(지배주주)총포괄이익	N/A	(4.6)	(7.5)	(10.1)	(21.3)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N/A	0.0	0.0	0.0	0.0
EBITDA	N/A	(3.1)	(6.9)	(9.4)	(17.8)
증감률 (%)	N/A	N/A	적지	적지	적지
EBITDA 이익률 (%)	N/A	(137.2)	(317.7)	(229.9)	(229.9)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9	2020	2021	2022	2023F
EPS (당기순이익, 원)	N/A	(685)	(760)	(970)	(1,788)
EPS (지배순이익, 원)	N/A	(685)	(760)	(970)	(1,788)
BPS (자본총계, 원)	N/A	628	1,121	207	(1,543)
BPS (지배지분, 원)	N/A	628	1,121	207	(1,543)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N/A	0.0	0.0	0.0	(12.2)
PER (지배순이익, 배)	N/A	0.0	0.0	0.0	(12.2)
PBR (자본총계, 배)	N/A	0.0	0.0	0.0	(14.2)
PBR (지배지분, 배)	N/A	0.0	0.0	0.0	(14.2)
EV/EBITDA (배)	N/A	1.8	1.6	0.1	(16.3)
배당성향 (%)	N/A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N/A	N/A	N/A	N/A	0.0
수익성					
EBITDA 이익률 (%)	N/A	(137.2)	(317.7)	(229.9)	(229.9)
영업이익률 (%)	N/A	(153.7)	(341.0)	(248.4)	(254.4)
순이익률 (%)	N/A	(200.1)	(344.8)	(249.6)	(274.6)
ROA (%)	N/A	(43.7)	(59.1)	(100.3)	(80.9)
ROE (지배순이익, %)	N/A	(79.8)	(85.0)	(146.2)	251.4
ROIC (%)	N/A	N/A	(840.2)	(1,178.5)	(1,891.3)
안정성					
부채비율 (%)	N/A	82.6	25.2	157.5	(346.2)
순차입금비율 (%)	N/A	(98.2)	(91.3)	(55.4)	(105.0)
현금비율 (%)	N/A	297.9	527.6	98.1	120.6
이자보상배율 (배)	N/A	(5.7)	(77.2)	(135.0)	(10.9)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N/A	(7.6)	(3.7)	(5.5)	(8.8)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N/A	N/A	N/A	N/A	N/A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	76.0	76.4	54.3	53.8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코어라인소프트(384470)

(₩)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12/21 12/22 12/23

매수

Trading BUY

중립

축소

목표주가 (좌측)

코어라인소프트주가 (좌측)

투자판단 (우측)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과리율 (%)	
			평균	최고/최저

주: 목표주가 괴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재원)
- ◆ 상기 회사 코어라인소프트는 최근 1년 이내에 당사가 주권의 신규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한 기업입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조사분석자료는 당사가 대표주관사로 IPO를 실시한 기업(코어라인소프트)으로 규정에 의한 의무발행자료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코어라인소프트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사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에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3년 12월 14일 기준)

매수 (매수)	93.33%	Trading BUY (중립)	4.71%	중립 (중립)	1.96%	축소 (매도)	0.00%
---------	--------	------------------	-------	---------	-------	---------	-------